



*EU
Trade
Report*

EU 통상정보



* 'EU 통상정보'는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 브뤼셀지부가 회원사를 위해 EU의 주요 통상 현안을 수집, 정리하여 격주간 제공하는 것으로써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TEL (32) 2 639 0990 E-mail kitab@skynet.be 주소 :Avenue Louise 165, B-1050 Brussels, Belgium

2008 년 유럽경제전망

2008. 1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목 차>

I. 2007 년 유럽 경제.....	2
1. 성장률.....	2
2. 소비 및 투자.....	3
3. 수출 및 수입.....	4
4. 유로화.....	4
5. 인플레이션.....	5
II. 2008 년 유럽 경제 전망.....	6
1. 성장률.....	7
2. 소비 및 투자.....	8
3. 수출 및 수입.....	9
4. 유로화.....	10
5. 인플레이션.....	11
6. 주요국 경제 전망.....	12
1) 독일.....	12
2) 프랑스.....	14
3) 영국.....	16
4) 동유럽.....	18

I. 2007 년 유럽 경제

1. 성장률

□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6년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둔화 조짐을 보임

- 고용 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및 수출의 꾸준한 증가로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6년의 성장 기조가 3/4분기까지 이어 저 올해 유로존이 처음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는 예년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대외 부문의 성장 기여는 전년 수준을 유지
- 여름부터 조짐을 보인 세계적인 금융 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비교적 따뜻한 날씨로 인한 투자 건설 부분의 호황으로 2/4분기 까지 큰 불안을 가져오지는 못 했음

□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

-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위축에서 시작된 금융 시장 경색으로 인한 고금리, 대미 수출 둔화, 고유가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이 기업 및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기 시작

<유럽 주요 경제 지표 증가율 예상>

(%)

	가을 전망		봄 전망	
	2007	2008	2007	2008
GDP	2.9	2.4	2.9	2.7
민간 소비	2.3	2.4	2.5	2.6
투자	5.6	3.5	5.2	4.2
실업률	1.5	0.9	1.6	0.8
인플레이션	2.3	2.4	2.2	2.3

자료: 유럽 중앙 은행(ECB)

2. 소비 및 투자

□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 및 기업 경제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소비 및 투자가 상반기 경제를 이끌었음

-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저조한 유럽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 민간 소비가 고용 증대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 신뢰 회복으로 2007년 상반기 경제 성장에 기여
 - ❖ 1/4분기 독일의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소비가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실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부가가치세 인상의 영향을 제외하면 2006년 상반기 대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를 상회
 - ❖ 유로존의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3/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7% 포인트 증가
- 지난 수년간 과감한 구조조정을 거친 유럽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고용 증가는 내수 회복세와 맞물려 꾸준히 증가
 - ❖ 상반기의 설비 가동률 및 기업 고정 자산 투자율은 장기 평균치를 상회
 - ❖ ECB는 동구권 국가의 EU 가입 등으로 EU 기업들의 투자 범위가 확대되어 2007년 한 해만 3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기대

□ 그러나 ECB의 고금리정책과 서브 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기업 및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기 시작

- 건설투자의 위축으로 2/4분기 전년 동기비 2.5%(전기비 0.3%), 3/4분기 전년 동기비 2.2%(전기비 0.5%) 성장에 머물렀음
- 에너지 및 식품 등 기초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하였고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한 신용 경색, 일부 유럽 국가 들의 파업 및 주택 시장 위축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 둔화
- EU의 기업 경기체감지수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망라하여 지난 7월부터 하강.

3. 수출 및 수입

□ 아시아 및 산유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미국 수출 감소를 상쇄

- 수출 증가는 대부분 유로화 강세에 따른 가격 상승에 기인하였으며 수출량은 대체로 예년의 수준을 유지.
- 대미 수출이 2/4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8월까지 전년비 1.7% 감소한 반면 아시아 신흥 국가로의 수출은 중국 15.5%, 인도 24.3%의 증가를 보여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

□ 세계 상품 가격 및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4. 유로화

□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2005년 절상 추세로 전환한 후 2007년 들어 최고치 경신하는 등 강세 기조가 계속되었음

- 3/4분기 들어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신용 경색 및 미국 서브 프라임 부실로 EU 내에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주춤한 유로는 9월 들어 다시 강세 기조를 이어가 11월에 사상 최고치 경신
- 최근의 유로 강세는 2006년 이후 미국의 경제 성장 및 세계 경제와의 ‘ 디커플링 ’ 으로 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유로화는 달러의 대체 기축통화로서 부각
- EU 경제는 세계 경제호황과 건강한 기업구조, 경제 개혁의 효과로 건실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크지 않아 유로존 증시와 채권 시장으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
- 오일머니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쿠웨이트와 시리아는 달러 페그제 폐지하였으며 11월 OPEC 정상 회담에서는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석유대금의 유로화 결제 건의
- 유로화 강세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면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되는 폭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보임

5. 인플레이션

□ ECB의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인 2% 내외를 유지하다 9월부터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 비에너지 상품 가격은 8월에 상승 9월에 예년 수준 회복했다가 다시 상승한 후 평균 상회 유지
- 농산물 가격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낮은 재고 수준 등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 보이며 물가 상승 견인. 10월말 작년 기준 17% 상승

II. 2008 년 유럽 경제

1. 성장률

□ 최근 유럽 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2008 년도 유럽 경제가 2% 초반대의 둔화된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08년과 2009년 유럽 경제 성장률을 6개월 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4%로 하향 수정하였으며 유로존은 각각 2.2% (2008년), 2.1% (2009년)으로 전망
- OECD는 1.9%, IMF 역시 선진국은 2.5%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동유럽 신규 EU국가들의 성장세와 역내 교역 확대, 중동 오일달러 유입 등은 경기둔화 폭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IMF 는 EU 신흥 국가의 2008 년, 2009 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6.3%, 5.7%로 전망

<유럽 경제 성장률 전망>

(%)

	ECB		IMF		OECD
	유럽	유로존	유럽	유로존	
2007	2.9	2.6	3.0	2.5	2.6
2008	2.4	2.2	2.5	2.1	1.9
2009	2.4	2.1	—	—	2.0

□ 그러나 미국 금융 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경우 성장 전망치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

- 미국의 서브 프라임 부실화로 신용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영국, 스페인 등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컸던 국가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금융 시장의 변동에 덜 민감한 신흥 유럽 국가들 역시 만성적 경상 수지 적자로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충분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과열된 경제가 안정을 보임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음

❖ EU 금융국 감독관 Joaquin Almunia "최근 금융 시장과 관련된 미국 경제 상황, 환율, 유가를 고려하면 유럽 중앙은행의 전망 수치는 더욱 낮아질 수 있음"

- 특히 최근 발표된 전망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효과가 신흥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상쇄되어 세계 경제가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토대

❖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경우 높은 대미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중남미 국가와 아시아 지역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됨

❖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Peter Berezin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 증가에 따른 신용경색과 달러약세 등 영향이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전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2008년은 다시 커플링의 해(the year of recoupling)가 될 것"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

(%)

미국 경기 연착륙		미국 경기 침체	
2007	2008	2007	2008
2.5	2.2	2.4	1.3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Heading for the Rocks: Will financial turmoil sink the world economy?, 2007. 9

2. 소비 및 투자

□ 높은 국제 유가 및 신용 경색,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2008 년 EU 의 성장동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

- 고용 증대로 가계 실소득은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구매심리가 다소 개선될 것이며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이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 총투자 증가율은 2007년의 5.5%에서 3.5%로 감소할 전망

□ 그러나 민간소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임금 동결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되었고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가와 글로벌화로 인한 경쟁 심화로 실 근로 소득 증가율은 1.5% 미만으로 예상

- 위축된 시장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 역시 현 수준 유지할 것이며 정책적 장려로 저축률도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임

❖ Citigroup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주택 시장의 침체와 미국발 신용 경색으로 인한 가계 이자 부담 증가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1%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경우 재정 적자 둔화 폭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세금 인상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민간소비가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임

<민간소비 예상 증가율>

(%)

	2007	2008	2009
ECB	2.3	2.4	2.2
OECD(유로존1)	1.6	2.1	2.1

¹ 2001년 기준

□ 투자는 성장세가 완만해져 2008년에는 4% 내외로 둔화될 전망

- 2007년 7%가 넘는 성장률을 보인 투자 부문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4% 내외로 둔화될 전망으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2008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민간 부문 투자는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을 것
- 특히 건설 투자 부문에서 그 둔화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3. 수출과 수입

□ 수출 증가율은 2007년의 6.3%에서 5.8%로 감소할 것

- 미국 경제 둔화가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아시아와 산유국으로의 수출은 기존의 호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수출 증가율의 둔화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세계 시장 점유율은 최근의 유로화 강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어 1% 미만의 하락세에 그칠 것

<부문별 GDP 성장 기여율>

(%)

	2007	2008	2009
민간소비	1.3	1.4	1.3
투자	1.2	0.8	0.7
수출	2.5	2.3	2.4

자료: 유럽 중앙 은행

4. 유로화

□ 유로는 향후 2년간 1 유로 = 1.46 US\$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한 차례의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급등 속에 ECB가 인플레이 제어를 중시함에 따라 미국과의 기준금리차는 역전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재정 수지 적자 등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 산재
- 투자 다양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 및 산유국이 유로화를 매입할 가능성 및 산유국이 결제 통화로 유로를 선택할 가능성 증가
- 2007년 증시 자금 유입으로 유로화 강세가 시현되었으나 유로존 주식은 지수 상승 및 유로화 상승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유로존 주식을 매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여 유로화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인플레이션

□ 유럽 중앙은행은 2008년 인플레이션을 2007년의 2.3% 보다 소폭 상승한 2.4% 선으로 전망

- 유로존 역시 2007년의 2%에서 2.1%로 상승하여 ECB 목표 인플레이션을 (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유가와 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금리인하와 겹칠 경우 인플레이션 견인 요소가 될 것임

-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2009년 12월 인도분이 83US\$에 거래되고 있으며 세계 곡물 수확량이 급감한데 반해 신흥경제의 곡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이 같은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2008년 초반까지 계속될 것이나 유로 강세가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견인에 한계가 있으며 수입 가격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여(2008년 1.5%, 2009년 1%) 2008년 중반에는 예년의 안정세를 회복할 것
- 최근 4/4분기 유럽 중앙은행 서베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예상 하는 2007-09년 인플레이션률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장기적 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역시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인플레이션 전망>

(%)

	2007	2008	2009
ECB	2.1	2.5	1.8
OECD(유로존)	2.2	2.2	2.3
IMF	2.3	2.3	-

5. 고용과 실업률

□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2009년까지 현재의 7.3%에서 7.1%, 유로존은 7%에서 6.6%까지 하락하여 최근 1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 유럽 전체로는 450 만, 유로존은 320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실업률 전망>

(%)

	2007	2008	2009
ECB	7.3	7.1	7.1
OECD	6.5	6.4	6.4

6. 주요 EU 국가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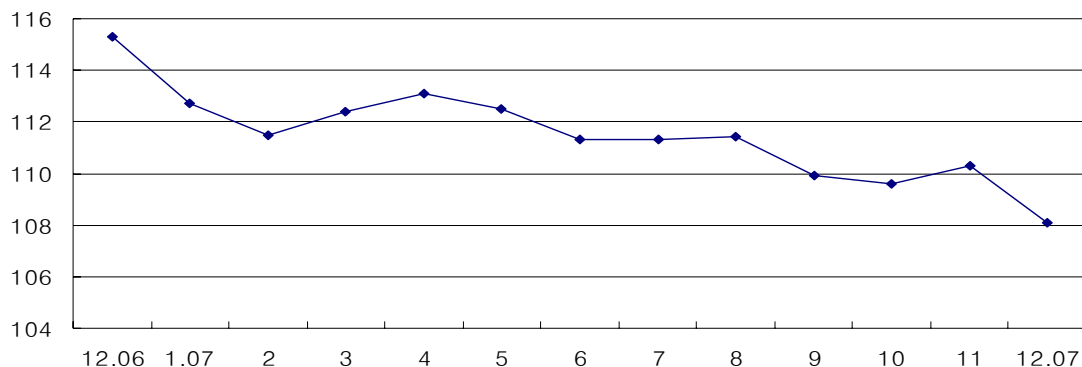
1) 독일

□ 투자와 소비 성장으로 2007년 GDP 성장률은 2.5%로 전망

- 통독 이후 최고의 호황세는 2007년에도 계속되었으며 특히 국내 소비가 연초의 부가가치세 인상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민간 및 정부 부문의 투자 역시 2007년 성장 축으로 작용
- 부가가치세 인상의 영향은 상반기 소비가 하반기로 미루어진 것에 그쳤고, 침체 일로에 있던 건설업도 기업 및 정부 투자로 2/4분기부터 높은 성장을 기록
- 부가가치세 인상분은 이미 2006년 말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었으며, 고용 증대로 인한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2%에 미치지 못할 전망
- 경상 수지 흑자 폭 역시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상반기 수요의 소폭 감소로 전년에 비해 증가

□ 경기체감지수(IFO 지수)는 2/4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 기업들이 현재의 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 체감 지수 추이>



자료: IFO 경제 연구소, (지표는 2000=100, 계절 조정)

□ 2008년 역시 예년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유가 상승 및 미국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전망

- 유럽 중앙 은행은 2.4%, IFO는 1.8% 전망
 - ❖ IFO 의 전망은 유가(브렌트유)가 90 달러, 환율은 1 유로=1.45 달러에 기초한 수치로 미국 금융 시장 위기의 여파가 2008 년에도 지속될 경우 민간 소비 감소 및 투자, 수출 감소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가능성 시사
- 고용 증대와 경제 호황에 대한 소비자 기대로 민간 소비는 전년대 2.4% (유럽 중앙 은행 예상) 상승하여 2008년에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축이 될 것으로 기대
- 기업 투자 역시 모든 업종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시현한 2007년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전망
 - ❖ 고용 증대 역시 2008 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단위 노동 비용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
 - ❖ 설비 가동률 및 기업 이익 추이는 낙관적이나 미국 경제 침체의 여파에 대한 우려로 기업의 IFO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
: 12 월 지표는 98.2 (2000 년=100)

<독일 경제 전망>

(%)

	유럽 중앙 은행			IFO 연구소	
	2006	2007	2008	2007	2008
GDP 성장률	2.7	2.5	2.4	2.5	1.8
민간소비	0.8	1.0	2.3	-	-
수출	12.5	8.7	7.1	-	-
실업률	8.4	7.3	6.5	-	-
인플레이션 ²	0.3	1.8	0.9	2.1	1.5

² 유럽 중앙은행: GDP 디플레이터, IFO 연구소는 소비자 물가지수 사용

2) 프랑스

□ 2008 년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기업 투자 및 수출 감소로 전년비 다소 둔화될 전망

□ 소비는 가계 명목 소득의 낮은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에도 기존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

- 세금이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2008년 상반기 까지 물가상승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나 2007년 수준의 환율을 유지한다면 연간 물가상승률은 전년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개인 연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지고 가계 저축률은 전년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 소비는 기존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최근의 금융 시장 위기 및 전반적 경제 상황으로 기업 투자는 미미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임

-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과 신용경색으로 인해 대출비용이 급증한 영향의 여파로 생산시설 투자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 부문 역시 투자 침체 예상

❖ 제조업 부문 투자 증가율은 2008 년 2/4 분기 기준 0.5%까지 감소할 것

□ 유로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공산품 수입 증가로 2007 년에 이어 경상 수지는 적자를 보일 전망

- 프랑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유로의 강세는 2008년 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아 서비스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전체 수출은 감소 우려
- 반면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2007년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여 (프랑스 통계청 전망: 4.5%) 경상 수지 적자 예상

□ 신규 고용 증가세는 2008 년에도 이어져 실업률은 9% 이하로 하락할 전망

- 정부 보조금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위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08년에도 계속되어 상반기에만 122,0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
- 그러나 완만한 고용 성장은 임금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생산성 향상으로 단위 노동 비용은 1.5% 상승에 그칠 것

□ 식품 가격 및 유가 상승과 불안정한 금융 시장의 영향으로 2007 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세는 2008 년에도 이어질 전망

- 2007년 9월 이후로 유가는 급상승 중이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 가공 식품 가격으로 이어져 2008년에도 2% 안팎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며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은 또 다른 인플레이션 견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

<프랑스 경제 전망>

(%)

	유럽 중앙 은행			프랑스 통계청	
	2006	2007	2008	2007	2008
GDP 성장률	2.0	2.4	2.3	1.9	1.7
민간소비	2.6	2.6	2.3	2.0	1.9
수출	6.0	5.5	5.6	3.6	3.2
실업률	9.4	8.9	8.5	-	-
인플레이션	2.0	1.9	1.8	-	-

3) 영국

□ 금융 불안의 장기화와 파운드화 강세로 성장세는 둔화되어 2%의 초반대 성장 예상

-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영국 경제는 미국 경제와 상관관계가 높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최근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영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으며 이는 향후에도 성장 둔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2008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5%p 정도 하향된 2% 초반에 그칠 전망

❖ 영국 산업 연합(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역시 최근 금융 시장 불안과 에너지 가격 증가로 2008년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로 하향 조정

- 특히 영국의 높은 가계 대출 비율 및 부동산 지출 비중,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영국발 신용 위기까지 우려할 수준

□ 2007년 경제 성장의 주 원동력으로 작용한 민간 소비 성장 폭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투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주택 및 금융 자산 가격 상승,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호조가 2007년 경제를 견인하였으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저축 선호도 증대 및 주택 가격 상승 폭 둔화로 인한 부동산 자산 효과 약화로 민간 소비 성장 폭은 다소 감소할 것
- 2006년 이후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투자는 기업의 대출 비용 증가 및 유동성 감소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GDP 성장률을 상회할 전망
- CBI의 전망에 의하면 금융 및 건설 부문의 투자 둔화로 투자 증가율은 2007년의 5.7%에서 1.8%로 큰 폭의 하락세 우려

□ 수출은 전년비 5%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소폭의 경상 수지 적자 예상

- 수출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파운드화의 약세로 수출 증가율은 5.5~6% 정도를 유지할 전망이며 수입 증가율도 5%대에 머물 것

□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증가로 실업률은 전년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최근의 고용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로 실업률은 5% 안팎으로 예년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연 실업률을 상회하여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목표율인 2%에 근접할 전망

- 중앙 은행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만한 임금 상승 폭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예상하기 어려우나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영국 경제 성장 전망>

(%)

	유럽 중앙 은행		
	2006	2007	2008
GDP 성장률	2.8	2.8	2.5
민간소비	2.0	2.4	2.2
수출	11.6	5.8	5.4
실업률	5.3	5.0	4.9
인플레이션	2.4	2.6	2.3

4) 동유럽

□ 2008 년도 동유럽의 고성장은 다소 주춤하여 5%대의 성장을 보일 전망

- 2008년도 동유럽 경제는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 해외 수요의 둔화 등으로 전반적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국가들의 경우 경기 과열로 인한 조정 과정에서 성장률은 5% 이하로 하락할 우려, 높은 인플레이션률 역시 잠재적 리스크 요인
- CEE(Central & Eastern)국가 중 최근 경제 성장이 부진한 폴란드만 전년 대비 성장을 확대가 기대되며 나머지 국가들은 다소 주춤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나 예년의 높은 성장세는 지속될 것

<동유럽 국가의 경제 성장 전망>

(%)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유럽	3.8	3.7	3.2	3.5	3.3	3.1
신흥 유럽국	6.6	6.3	5.7	7.2	6.8	6.0

자료: IMF

□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에서 2008 년에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특히 폴란드, 체코는 다양한 분야의 현지투자 확대에 2008 년에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보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세금 인상을 수반한 정부 개혁 정책으로 체코의 2008 년 민간 소비 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 증대로 둔화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
대외부문의 경우 수출과 수입 모두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헝가리의 경우 긴축재정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성장률이 가장 저조한 편이며 긴축 통화정책과 높은 금리로 인해 내수시장이 위축돼 2008 년 역시 낮은 성장률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고용 증대로 민간 소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국내 수요 증가폭 둔화로 2008 년 폴란드의 경제 역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 임금 상승폭 둔화는 민간 소비에 반영될 것.
경상 수지 적자 예상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및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로 건실한 성장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08 년 초의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주요 동유럽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

(%)

	2006	2007	2008
체코	6.4	5.4	5.1
헝가리	3.9	2.0	2.5
폴란드	5.8	6.5	5.7
러시아	6.7	7.0	6.2

자료: Eurostat, 각 국 통계청 및 National bank of Austria

유럽에서의 인재 발굴과 채용은 무역협회 잡-사이트!

우리 지부는 유럽진출 한국기업, 금융기관 및 교포기업인의 인력 (유러피언 및 유럽주거 한국인)을 돕기 위해 무료 채용-취업 알선사이트(<http://jobeu.kita.ne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홈페이지 <http://eu.kita.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